

마귀는 어둠 속에서 움직이므로 불을 켜고 자세요

밤이 되면 아픈 데가 더 아프고 사람이 더 많이 죽어

이긴자는 이슬성신을 내리는 자요 이슬성신을 내리는 자가 구세주라고 호세아서 14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대로 믿노라는 기독교인들이 이걸 모르고 있으니 저들은 구세주를 찾을 길이 없습니다. 구세주가 이 세상에 나타나서 역사하고 있는데도 기독교인들이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구세주 얼굴에서 빛이 나간다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보기 때문에 이사야서 60장에 구세주 얼굴에서 빛이 나간다는 말씀이 쓰여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60장은 햇빛이 빛을 발하지 아니하고 어두워질 때에 구세주의 얼굴에서 빛을 발한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 가서는 기독교인들이 나타나 할 것 없이 구세주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는 십자가 달린 교회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 다 떼어 버리고 거기마다 승리제단 간판을 저희들이 걸게 되어 있습니다.

아랍 성지 까만 돌이 하얗게 변해

구세주 얼굴에서 빛이 나간다는 것은 격암유록과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알라 신을 믿는 사람들도 앞으로 구세주가 출현해서 그 얼굴에서 빛이 나간다는 말씀이 쓰여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경속에 쓰여 있습니다. 이 사람이 1986년도에 사우디아라비아 갔을 때에 아랍 사람들이 말하기를 성지(聖地)에 있는 까만 돌이 하얗게 될 때에는 구세주가 온 줄 알아라, 하고 마호메트라는 사람이 얘기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랍에 갔을 때에 그 까만 돌이 하

진진 겁니다. 그러니까 아랍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구세주가 왔으니까 까만 돌이 하해진 게 아니냐 하고서 막 떠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말을 듣고 빙글빙글 웃기만 했습니다. 자기들 눈앞에 바로 구세주가 서 있는데 이를 몰라보니가 웃음이 났던 것입니다. 최광종과 같이 갔는데 이 사람이 빙글빙글 웃으니까 그도 따라서 웃었습니다. 구세주가 아랍 땅을 밟고 있다는 사실을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웃기만 한 겁니다. 아랍인들이 구세주가 동양인이라는 것을 알면 돌로 쳐서 죽여 버려요. 자기네와 똑같이 생긴 사람이 구세주로 올 걸로 믿고 있는데 동양인이 구세주라면 믿지 않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냥 웃기만 한 거예요.

빛이 나가면 죽음이 없어져

그런데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든지 말이라는 게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말이 변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 말은 항상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말씀하고 있는고로 변함이 없이 항상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 안 있으면 태양이 어두워지고, 전깃불도 없어지고, 빛이라는 빛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 얼굴에서 빛이 나가는데 이 사람 얼굴에서 나가는 빛은 태양빛보다 수십 배 밝은 빛입니다. 그 빛은 곡선광선이며 그림자가 없는 빛입니다. 햇빛이 가려지면 어둑어둑하지만 구세주 얼굴에서 나가는 빛은 곡선광선이므로 그림자 져 있는 상태로 어둑어둑한 그런 곳이 없습니다.



구세주 조희성님

여러분들, 밝은 빛이 비쳐 세상이 환하면 기분이 좋습니다. 아픈 사람들이 밤에 많이 아파요, 대개 밤에 많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둠이 없어지는 세상에서는 자연히 죽음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 사람의 얼굴에서 빛이 발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죽음이 없습니다. 죽음이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저런 말씀을 하실까, 염려하는 사람도 몇 사람 있는데 그거 염려하지 마세요. 이 사람이 그걸 알고 하는 거

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암만 나이가 500살 먹은 사람이 있어도 죽지 않아요.

영생의 확신만 있으면 안 죽어

여러분들이 죽지 않는 영생의 세계에 들어가서 살려면 여러분들이 영생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조급이라도 의심을 하면 죽게 되어 있어요. 이 길은 마음으로 가는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생의 확신을 가

지면 안 죽게 되어 있습니다. 다 죽어 가는 환자도 나는 안 죽는다는 확신을 가지면 숨이 안 넘어갑니다. 깔딱깔딱 해도 죽지를 않아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시험 삼아 해 봐도 됩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숨이 넘어가려고 깔딱깔딱 할 때 내 버려두면 죽어버려요. 그러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으면 안 죽게 되어 있어요. 죽지 않을 마음을 가진 사람은 숨이 넘어가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마귀는 어둠을 타고 들어와

이 사람이 이 나이 먹도록 이 죽음의 세상에서 무슨 경험은 없었겠습니까. 다 죽어가는 환자 옆에서 밤잠을 안자고 찬송도 부르고, 기도하니까 그 사람이 죽지를 않습니다. 이 사람이 예배를 보면 사람이 죽지 않는 게 소문이 나서 다 죽어가는 환자만 생기면 이 사람을 불러왔습니다. 이 사람은 마귀의 신이 어떤 길목을 타고 온다는 것을 압니다. 마귀는 어둠을 타고 오기 때문에 방안을 환하게 불을 켜놓고 어두운 곳이 없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마귀가 어두운 길목을 타고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을 못 죽입니다. 이 사람이 기도를 잘해서 그 사람이 안 죽는 게 아니라 환하게 해서 그 길목을 막아버리니까 죽을 사람이 죽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까지도 잠잘 때에 불을 켜놓고 잡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세요. 잠잘 때에 환하게 불을 켜고 자는 것이 여러분의 생명을 보존하는 방법이에요. 아시겠어요? 어둠을 타고 마귀가 들어와요. 그래서 깜깜할 때 이가 아파도 더 아프죠? 해

만 졌다하면 아픈 데가 더 아프죠? 신경통 있는 사람 더 아프죠? 그러나 방안이 대낮처럼 환하면 아픈 것이 아파지지 않아요. 아픈 것을 느낄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신은 빛의 신이기 때문에 환한 빛 속에서는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지만 어둠 속에서는 마귀 신이 함께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교도소에서 징역을 사는데 저쪽 건너편 방에 마귀가 들어왔다 나갔다 해요. 이 사람이 마귀가 들락거리는 것을 보고 불을 켜고 자라고 하니가 불을 켜면 잠이 안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뒀더니 거기서 죽은 송장이 나가더라고.

생명의 근원은 마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사람의 생명이 죽는 거죠?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신이요, 사람 속에 하나님의 신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거지, 하나님의 신만 없으면 그냥 바로 순간에 송장이 돼버려요. 하나님의 신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잠언서 4:23)"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과학자들도 모릅니다. 암만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도 모릅니다. 신의 세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2001년 1월 13일 말씀 중에서

[연재] 不老不死 어떻게 가능한가

피의 순환

사람이 여타 생물보다 못하단 말인가

요즘 70세는 노인 죽어도 못 낀다. 우스운 얘기로 노인행세를 하려면 적어도 80이 넘어야 한다는 말이 있다. 작금은 어느덧 100세 장수시대에 성큼 들어섰다고 할 수 있는데 만약 100세 이상 살았지만 병상에 누워 연명한다면, 어느 누가 그런 삶을 바라겠는가! 반면 100세가 되어도 정신이 또렷하고 활기차게 자신의 일을 하며 건강한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상태가 된다면, 그걸 바라지 않는 사람은 또 아마 없을 것이다.

그런 이상적인 삶은 과연 희망 사항일까? 결코 그렇지 않다.

세상에 인간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수백 세를 살고 수천 세를 산다면 우리 사람이라고 못 할 것이 없다. 우리가 잘 모르는 것들 중에 사람보다 오래 산 것들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을 갖다보면 어느덧 사람이 오래 산다는 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 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사람이 되어서 못할 것이 무엇인가!!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요, 만물의 척도라는 존엄과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절감하자. 그렇게 되는

그 순간부터 수백 수천 살의 불로장생(不老長生)의 꿈이 현실화되기 시작할 것이다.

1. 우리가 식당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바닷가재

평균 수명은 100년 이상이다. 바닷가재는 생물학적으로는 1000년 단위로 살 수 있는 생물이라고 한다.

특기할 만한 것은, 생물을 늙게 하는 요인인 텔로미어의 감소인데, 텔로미어는 세포의 유전정보가 담긴 염색체 말단 부위를 말한다. 세포가 분열을 거듭할수록 이것이 짧아지고 나중에는 세포분열이 일어나지 못하며 세포가 죽게 된다. 따라서 세포분열의 키를 쥐고 있는 텔로미어를 길게 하면 노화를 늦출 수 있다. 이를 길게 할 수 있는 것이 텔로머라제라는 효소이다. 바닷가재의 세포에는 바로 이 텔로머라제라 항시 풀가동돼 있어서 신기하게도 텔로미어가 파괴되는 일이 없다고 한다. 그래서 세포는 노화되어 죽지 않고 계속 성장만 하기 때문에 영생이 가능하다 한다.

그런데 이런 어디까지나 이론상이고 현실에선 갑각류 특성상 바닷가재도 탈피를 하는데, 탈피를 하다가 자기껍질에 끼여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



최고령 소나무. 거의 5000년 동안 살았다고 하는데 크기가 생각보다 크지 않은 이유는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 남아서 그렇다. 장수 이유가 아이러니하게도 스트레스라고 한다. 고통을 이겨야 장수한다.

다고 한다.

2. 갈라파고스 땅거북의 평균수명은 180년 이상

옛부터 장수의 상징이다 하면 거북인데, 그 거북이 중 가장 수명이 길다고 한다. 그 비결은 호흡에 있다고 하며, 이 거북이의 경우 1분에 2~3회 정도의 호흡을 한다고 한다. 좋은 환경만 유지되면 250년까지는 산다고 한

다.

3. 붉은 성게의 평균 수명은 200년 이상

10여 년 전만 해도 붉은 성게의 수명은 10년 안팎이라고 알려졌지만, 성장률과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해 연구한 결과 수명이 200년 이상인 것으로 나왔다고 한다. 붉은 성게는 매우 더디지만 꾸준하

게 성장을 해서 지름 15cm이상까지 자라며, 아주 큰 것들은 지름 19cm정도까지 자란다. 수명도 200년 이상인 것으로 추정한다.

4. 북극고래의 평균 수명은 210년 이상

몸 길이 최대 20m의 거대한 몸에 2m에 달하는 긴 수염을 가진 것이 놀랍기만 하다. 어떻게 이 거대한 동물이 오래 살 수 있을까? 한때 인간의 포경업으로 멸종위기까지 갔지만, 전 세계적으로 포획 제제가 가해지면서 현재 10,000여 마리로 다시 늘어났다고 하니 다행스러운 일이다.

5. 그린란드 상어 평균 수명 400년 이상

북극 인근 저온의 해수면에서 수심 2000m에 서식하며 1년에 1cm씩 저성장한다고 한다.

북극에서 생포한 암컷 상어 28마리의 평균 나이는 272세고, 몸 길이 5.02m로 가장 큰 상어는 392세라 한다. 그린란드 상어가 7m까지 자라는 것을 감안하면 수명이 400세 이상으로 나왔다고 한다. 붉은 성게는 매우 더디지만 꾸준하

되어 있는데 사실상 실명상태라 보면 된다.

6. 세계 최장수 생명체

캘리포니아 중부 동쪽 끝에 있는 해발 3000m 화이트 산(White Mountain)의 산비탈에 세계에서 수령이 가장 오래된 브리스콘 소나무(Bristlecone Pine)가 있다고 학계에 보고된 것은 1957년이다. 수령 4천 690여년. 얼핏 한국의 향나무를 연상케 하는 이 나무는 오랜 세월 동안 갖은 풍상에 나무껍질이 벗겨지고 나무속까지 내보일 정도로 처절한 모습을 보여준다.

이 나무가 서식하는 환경은 석회질이 많은 메마른 땅이며, 100년에 그 지름이 1인치 정도밖에 자라지 못한다는 것으로 봐서 얼마나 척박하고, 또 성장속도가 느린가를 짐작할 수 있다. 그런 환경에서도 잘 살고 있으니 놀랍기만 하다.

100세 장수 시대의 문턱에 와 있는 요즘,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 여러모로 건강관리에 적극적이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닌 건강하고 멋지게 오래 살기 위해선, 먼저 사람이 오래 사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는 믿음과 인간 최고의 지고지선(至高至善)의 목표라는 의식부터 새롭게 바뀌어야 한다.*

김주호 기자